선진미술관서 배운다 유럽편

9 런던 빅토리아 앤 앨버트 미술관

화려함의 극치…동서고금 장식품 다 모였네

런던=정상필 EU특파원

세계최대 디자인 미술관
한국관 청자·장독대 전시
관람객 교육·체험 심혈

영국 런던의 사우스 켄싱턴(South Kensington) 지역에 위치한 국립 빅토리아 앤 앨버트 미술관(Victoria and Albert Museum·V&A)은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건물 로비의 높은 천장에 매달린 현란한 샹들리에가 먼저 미술관에 들어서는 관람객들을 압도한다. 건물 자체가 풍기는 아우라로 디자인 관련 미술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는 명성을 느낄 수 있다.

이 미술관에는 기원전 수메르 문명의 골동품들에서 15세기 영국 귀족의 집을 채웠을 식기 등 각종 장식물들, 21세기 패션을 주도하는 유명 디자이너들의 의상까지, 회화가 아닌 장식미술의 모든 것이 전시돼 있다. 도자기, 은접시나 은주전자 등 식기, 조각, 보석과 크리스탈 등 액세서리, 현대 의상, 가구를 비롯한 중세 인테리어 소품, 건축 장식물 등 전시 품목이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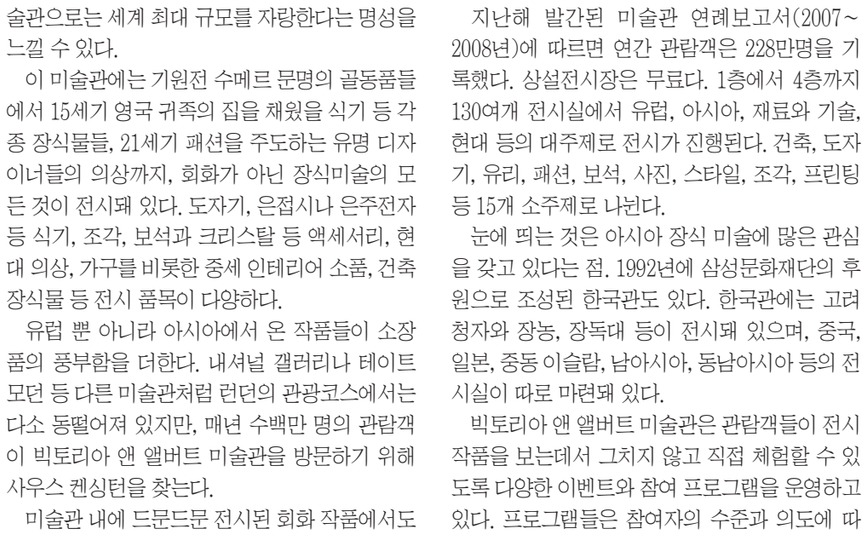
유럽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작품들이 소장품의 풍부함을 더한다. 내셔널 갤러리나 테이트 모던 등 다른 미술관처럼 런던의 관광코스에서는 다소 동떨어져 있지만, 매년 수백만 명의 관람객이 빅토리아 앤 앨버트 미술관을 방문하기 위해 사우스 켄싱턴을 찾는다.

미술관 내에 드문드문 전시된 회화 작품에서도 회화보다는 그림을 담고 있는 금박 액자가 더 눈길을 끄는 곳이다. 빅토리아 앤 앨버트 미술관은 1852년 영국 왕실의 별궁에 제조업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개장했다. 1836년 설립된 국립 디자인학교가 기원이다. 이후 장식 미술관, 사우스 켄싱턴 미술관 등으로 불리다 1899년 빅토리아 여왕이 자신과 남편의 이름을 따 현재의 이름을 수여했다. 분관으로 애딘버러의 빅토리아 앤 앨버트 장난감 박물관 등이 있다.

지난해 발간된 미술관 연례보고서(2007~2008년)에 따르면 연간 관람객은 228만명을 기록했다. 상설전시장은 무료다. 1층에서 4층까지 130여개 전시실에서 유럽, 아시아, 재료와 기술, 현대 등의 대주제로 전시가 진행된다. 건축, 도자기, 유리, 패션, 보석, 사진, 스타일, 조각, 프린팅 등 15개 소주제로 나뉜다.

눈에 띄는 것은 아시아 장식 미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 1992년에 삼성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조성된 한국관도 있다. 한국관에는 고려청자와 장농, 장독대 등이 전시돼 있으며, 중국, 일본, 중동 이슬람,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의 전시실이 따로 마련돼 있다.

빅토리아 앤 앨버트 미술관은 관람객들이 전시작품을 보는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와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들은 참여자의 수준과 의도에 따라 섬세하게 나뉘어 있다. 예를 들어 5~12세 아동이 있는 가족을 위해 마련된 '백-팩(Back-Pack)'은 황제의 파티, 중국의 보물 등의 주제 중 하나를 골라 주제별 배낭 속의 퍼즐, 스토리 보드 등을 가족이 다 같이 전시실을 오가며 맞춰나가는 방식이다.



빅토리아 앤 앨버트 미술관 내에 설치된 한국관. 삼성문화재단이 지난 1992년 33만 파운드를 들여 조성했다.

런던의 장식미술 전시관인 빅토리아 앤 앨버트 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이 고딕 양식 재현의 대가인 19세기 영국인 조지 길버트 스코트 경의 건축 장식을 보고 있다.

11~24세 젊은이들을 위한 워크숍, 강의 등이 수시로 열리고, 미술관 소장품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원하는 관람객을 위한 컨퍼런스나 토론, 투어도 상설 개최된다. 장애인 관람객들에게는 작품을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디자인을 본격적으로 배워보고 싶은 성인들을 위한 정보와 강의도 제공한다.

상설 프로그램 외에 특별전시회 기간에 마련되는 이벤트로 시너지 효과를 노리기도 한다. 지난 4월부터 바로크 양식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별전시회 '바로크 1620~1800 : 화려한 시대의 스타일'에 맞춰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바로크 거울 만들기, 바로크 음악 콘서트, 바로크 무용 공연, 바로크 의상을 주제로 한 토론, 전문가의 강연 등이 함께 열리고 있다.

관람객에게 많은 것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미술관의 정책은 예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빅토리아 앤 앨버트 미술관은 2007년 4월~2008년 3월 한해 동안 정부보조금 4천226만 파운드(약 856억원) 등 전체 수입 8천765만 파운드(약 1천775억원) 가운데 6천261만 파운드(약 1천268억원)를 사용했으며, 이 중 80%에 해당하는 4천985만 파운드(약 1천9억원)를 교육 등 관람객을 위한 자선사업에 사용했다.

/camus@kwangju.co.kr

끊임없는 변화와 투자로 전시 환경 업그레이드

■빅토리아 앤 앨버트의 '미래계획'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럽의 대형 미술관들이 가진 공통점 중 하나는, 끊임없는 변화와 이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고의 컬렉션과 시설을 자랑하고 있어서 이변이 없는 한 매년 수백만 명이 찾아들지만 업그레이드를 멈추지 않는다. 목적은, 단순 명쾌하다. 관람객에게 보다 나은 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빅토리아 앤 앨버트 미술관 역시 2000년 시작된 미래계획(Future Plan)이 '현재진행형'이다. 미술관 측은 2008년 말까지 전시 공간의 66%가 업그레이드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미술관의 '어디에선가'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된다.

가장 최근인 올 4월에 다시 문을 연 곳이 '부처 조각 전시실'이다. 4개의 방을 뚫어 더욱 넓은 전시공간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 극장 인테리어를 전시한 연극 전시실, 고대 그리스에서 현재까지의 보석 3천여점이 전시된 보석 전시실, 관람객 휴식 공간인 커피숍, 중동 아시아 이슬람 전시실, 스테인드 글라스 전시실, 연못이 있는 중정(中庭) 등 29곳이 새 얼굴로 관람객을 맞았다.

보석 전시실 '윌리엄 앤 쥬디스 볼린저 갤러리'는 미술관의 미래 계획에 따라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해 지난해 5월 관람객에 첫 선을 보였다. 보석 3천여점이 전시돼 있다.

올 6월에는 장인들의 금은 수공품이 전시될 길버트 갤러리, 9월에는 고려청자 등이 포함될 도자기 전시실 Ⅰ, 11월에는 300년에서 1600년 사이 조각이나 건축 장식 등이 전시될 중세와 르네상스 전시실, 2010년에는 도자기 전시실 Ⅱ 등이 차례로 문을 연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새 전시동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올해부터 이미 실행에 들어갔다.